



오상준
행복 칼럼
국제신문 정치부장,
'남국이랑 카톡하기' 저자

부산 남구와 남극은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다. 우리나라 최초로 남극 대륙을 밟은 사람이 고(故) 이병돈(1928~1995년) 부산수산대학(현 부경대학) 교수다. 게다가 부산시가 극지체험관, 제2극지 연구소, 해빙연구소 부두 및 물류창고를 포함한 극지타운을 조성하려는 곳도 남구 용호동이다.

‘한국의 아문센’으로 불리는 이병돈 교수는 1963년 3월 6일 미국 텍사스 A&M 대학 박사과정 유학 시절 미국-아르헨티나 공동남극해양조사단 연구원으로 아르헨티나 해군 조사선 ‘카피탄 카네하호’를 타고 남극 대륙의 알미란테 브라운 기지를 방문했다. 이는 1978년 12월~1979년 3월 ‘남북호’의 남빙양(남극해) 크릴 시험조업과 1985년 11~12월 우리나라 최초의 남극관측탐험대의 남극 과학탐사보다 각각 15년, 22년 앞선 것이다. 이 교수는 현재 남극 세종과학기지가 있는 김조지섬

북쪽의 드레이크 해협에 서식하는 동물플랑크톤 분포와 생물량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1965년 11월 귀국했다. 이런 내용은 국제신문 1965년 11월 20일자에 ‘남극대륙을 밟은 사나이, 부산수대 이병돈 교수’라는 기사로 소개됐다. 이 교수는 아르헨티나 해군 조사선에서 크릴을 잡아 먹어봤더니 모양과 맛이 새우와 비슷하다며 고래 잡이에 드는 노력을 크릴잡이로 돌린다면 세계의 식량과 영양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1974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부설 해양개발연구소(현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초대 소장으로 부임해 우리나라 극지와 해양 연구의 주춧돌을 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극을 향한 이병돈 교수의 도전정신은 부산시의 극지타운 조성 계획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북아 해양수도권을 지향하는 부산시는 극지 연구·교

육·관광·산업이 어우러진 극지타운을 조성하면 부산이 세계적인 극지허브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극지타운에 들어설 주요 시설 중 하나가 극지체험관이다. 남극과 북극은 기후, 거리, 비용 같은 여러 가지 제약 조건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기 쉽지 않으므로 실제 가지 않더라도 극지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방한복을 입고 블리자드(눈폭풍)를 맞으며 혹한을 느끼고 펭귄 같은 동물을 볼 수 있게 하자는 구상이다.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인 ‘키자니아’를 연상하면 된다. 우리나라에서 남극 장보고과학기지로 가는 길목에 있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공항 바로 옆에 남극 체험관이 존재한다. 남극에 가보고 싶은 전 세계 인이 찾는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다. 크라이스트처치에는 기후상 눈이 오지 않는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남극의 관광 상품화에 성공했다. 열대 사막

의 나라인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실내 스키장처럼, 부산에 극지체험관이 들어서면 부산은 전국 초중고생 수학여행단과 외국인 관광객의 ‘버킷리스트’에 오를 수 있을 것 같다.

부산은 남극과 떼려야 뗄 수 없다. 1978년 12월 7일 박정희 대통령 시절 남빙양 크릴시험 조업선 ‘남북호’(5549t)가 출항한 곳이 부산항이었고 1985년 11월 16일 남극 김조지섬에 태극기를 꽂았던 우리나라 최초의 남극관측탐험대의 핵심 멤버가 부산 사람이었다. 윤석순 단장을 비롯해 장순근, 최효, 이동화, 대원 모두 부산 사나이였다. 국회의원을 지낸 윤석순 한국극지연구진흥회장은 “남극은 사실상 모험심 강한 부산 사람이 개척한 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극은 항구도시 부산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바다의 끝이자 새로운 대륙의 시작”이라고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퀴즈 하나. 남극과 북극 중 어디가

더 추울까? 상식적으로 남극이 상대적으로 따뜻할 것 같지만 남극이 북극보다 더 춥다. 관측 기록상 최저기온을 보면 남극은 영하 89.2도인 반면 북극은 영하 71.6도였다. 북극은 대부분 바다로 이루어져 열을 오래 잡아둘 수 있는 데다 멕시코 난류의 영향을 받지만 남극은 대륙이어서 열을 쉽게 방출하기 때문이다. 북극에는 이누이트가 살지만 남극에는 원주민이 없는 것이 이런 이유에서다.

남극의 면적은 중국과 인도를 합친 크기로 어마어마하다. 남극의 세계는 알면 알수록 신비하고 흥미롭다.



한국인으로 처음 남극을 밟은 부산수산대(현 부경대) 고 이병돈 교수의 소식을 실은 1965년 11월 20일자 국제신문.

황령산에 거북선 뒀은 바위있다

꼭태옥의 바람고개 이야기

‘배바위’의 수수께끼



꼭태암바위로도 불리는 황령산 배바위.

황령산에 ‘배바위’라고 부르는 바위가 있다. 배를 뒀었던 바위라는 뜻이다. 크고 둥근 두 개의 구멍 사이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기둥은 흡사 배를 뒀는 말쑥으로 보인다. 사람으로 치자면 코 기둥, 즉 비주(鼻柱)’에 해당되는 이 형상을 보고 익살스럽게 ‘꼭구멍바위’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이 배바위는 전포동으로 넘어가기 전 돌산마을 입구에서 황령산의 입도를 따라 걷다 보면 걸음걸이에 따라 대략 2~3분쯤 거리에 있다. 수년 전만 해도 무속인들이 이곳에서 의식을 치르기도 했다. 그 아래 인근에는 굿당도 있었다. 요즘은 산시대, 낙석 등의 위험 때문인지 배바위 입구에 출입금지 현수막이 쳐져 있다. 굿당도 수년 전 철거돼 흔적이 없다. 오고 가는 등산객들에게 배바위에 얽힌 이야기를 아느냐고 물어보면 고개를 젖거나 어색한 미소만 흘린다. 정말 이 배바위 기둥에 거북선을 뒀을 까. 얼른 들으면 너무나 당연한 듯인데, 그럴싸한 장치가 밝혀주고 있다. 조개껍질이 널려있었다는 것이 그것이다. 물론 요즘엔 눈 씻고 찾아봐도 조개껍질은 보이지 않는다. 어떤 원로 분은 바닷물을 조금 파보면 조개껍질이 나올 거라고 한다. 그럴다고 바닷물을 팔 수 없으니 임진왜란과 거북선으로 눈길을 돌려보는 수밖에 없다. 이순신 장군의 연합함대가 낙동강 하구로 들어오면서 왜군 전함 24척을 불태운 날이 1592년(선조 25) 8월 29일이다. 이어 부산포로 항진해서 왜군과 격전을 치른 부산포해전은 이를 뒤인 9월 1일이다. 나중임기에는 ‘선장 동원에 왜선 470여척이 출저어 있는 것을 훔쳐 공격을 개시’ 하였다고 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 1595년 11월 29일의 기록에는 300여 호의 백성이 옛 부산진 지역이었던 동평(東平)에서 변천(甌川) 지역에 살고 있다고 했다. 1904년에 간행된 경상남도 동래군가호안(慶尙南道東萊郡家戶案)에는 서하면 문현리, 즉 오늘날의 문현동에 김씨, 이씨, 정씨 등 모두 21호가 살았다고 되어 있다. 지금부터 70여 년 전만 해도 동천 끝단에 토종고래인 상괘리가 나타난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있다. 이런 사실

들로 미루어 볼 때 기수지역인 동천은 그 옛날 다양한 어종과 풍부한 수량, 맑은 수질을 유지했던 깊고 넓은 갯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동천을 해발 427m위의 황령산 내라라보고 있다. 대연 2동의 우룡산은 해발 141m이고, 문현3동 통일동산은 해발 119m이다. 황령산 배바위가 있는 곳은 정상으로부터 대략 200m쯤 아래에 있다고 쳐도 거북선이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위치고 있다. 선사시대에 배정고등학교 바로 밑이 바다였다는 설을 따라도 황령산의 바다에 잠겼던 적은 없었다. 하필 임진왜란 때만 바다에 잠겼을 리도 만무하다. 황령산은 애초 부족 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던 거칠산국의 이름 없는 한 산이었다. 산 아래 북쪽되면서 거칠산국은 사라지고 ‘거칠 황(荒)’과 ‘고개 령(嶺)’만 남아 오늘날의 황령산으로 불린다고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바다에 잠긴 적 없는 황령산의 배바위에 어떻게 거북선을 뒀었다고 하는 것일까. 부산포해전을 치른 거북선이 왜 거북도로 귀향하지 않고 황령산까지 올라갔을까. 거북선에 날개가 달려 있었거나 수륙양용이었다면 가능한 설정이다. 도저히 풀리지 않는 이 기막힌 수수께끼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그저 ‘쩔’이었던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70대 중반의 어른이 배바위와 거북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랐고, 조개껍질을 밟았던 발바닥의 감각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점이다. 어쩌면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면서 나라 잃은 슬픔을 달래고자 했던 무명의 한 백성에 의해 시작된 이야기는 아니었을 까. 배바위 옆을 지나가는 동안 문득 깨닫는다. 자연은 인간에게 신비한 조형물을 가까이 내어주면서 창조적 영감까지 준다는 사실을.

소설가·향토사연구가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는 현명한 대화법

문제행동에 지적보다 긍정적 반응

‘반영적 경청’이 문제 해결에 효과적

자녀를 키우다 보면 욕 하는 마음에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돌아서면 후회한 일이 있을 것이다. 부모가 흔히 내뱉는 말속에 있는 자녀와의 대화를 단절시키거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이 있는데 점차 말하는 부모는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아이들은 부모의 말투, 표정을 통해 부모의 기분이 어떠한지 알게 된다.

자녀와의 관계를 틀어지게 하고 소통을 차단하는 걸림돌이 되는 대화에는 ‘반드시 ~해야 해!’라는 명령이나 강요의 말, ‘만약 ~하지 않으면 ~할거야!’라는 경고나 위협의 말, ‘~하는 것은 너의 책임이고 의무야!’라는 지나친 비난과 설교의 말이 있다. 또 비판이나 비난으로 자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말, 욕설이나 조롱 또는 수치심을 주는 말, 무조건 긍정적인 평가나 칭찬으로 부추기는 말, 계속 깨물고 질문하는 말, 자녀의 말에 반정거리거나 화제를 다른 데로 돌리는 말 등이 있다.

이러한 말을 대화 첫머리에 하게 된다면 자녀와의 대화가 단절될 가능성이 높으며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좋은 대화란 상대의 마음을 읽고 공감하며 다가가는 대화를 말한다. 그렇다면 자녀와의 대화를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두 가지 대화 방법을 알아둔다면 자녀와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고 공감하게 하며 마음의 문을 여는 대화가 될 것이다. 먼저 대화를 하기 전에 누가 지금 이 일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지 문제의 소유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누가 이 일로 화가 나는지, 힘든지, 괴로운지, 피해를 입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만약 자녀가 문제의 소유자라면 부모가 자녀의 상처 받은 마음을 위로 하고 마음을 읽어 주며 잘 들어 주는 반영적 경청(Reflective Listening)을 사용하면 된다. 즉, 자녀의 눈을 보며 자녀의



말을 조용히 끝까지 들어주고, 부모가 잘 듣고 있다는 것을 중간중간 “아아~”, “그래”라고 얘기하며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준다. 자녀의 말이 끝나면 자녀가 말하고자 하는 즉, 위로 받고자 하는 감정이 무엇인지 찾아 자녀에게 말해주면 된다. 유치원(어린이집)에 가지 않으려 하는 아이 상황을 예로 든 부모의 반응을 보자.

아이: “유치원에 안 갈래.”
부모: “유치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보구나.”

아이: “응, ○○이 때문에 유치원에 안 갈래.”

부모: “○○이 때문에 네가 몹시 화가 났구나.”

아이: “응, ○○가 저번에 나를 밀었어.”

부모: “○○가 밀어서 많이 속상했었구나. 그래서 오늘도 ○○가 그럴까봐 걱정이 되는 거구나.”

이처럼 반영적 경청은 부모가 자녀의 말에 귀 기울여 듣고 이해하며 마음을 알아주는 공감하는 대화방법이다. 만약 부모가 문제의 소유자라면 자녀의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나 부모가 받아들이기 힘든 자녀의 행동에 대해 부모가 어떻게 느끼는지 부모의 느낌을 부모 중심으로 말하는 나-전달법을 사용하면 된다. 이것은 자녀에게 ‘너의 행동에 문제가 있어서 엄마(아빠)가 이렇게 되었으니 이해 해줘’라는 부모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다. 즉, 자녀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나 문제 행동에 대해서만 비난 없이 말을 한 후 그러한 자녀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느낌이나 감정, 부모에게 미치는

는 구체적인 영향이나 결과를 말하면 된다. 단, 자녀에게 ‘그러니 이렇게 하라’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처방적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야 한다. 이 부분은 자녀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몫이다. 집에 손님이 왔는데 아이가 계속 떠들며 소란스럽게 하는 상황을 예로 든 부모의 대화를 보자. “○○가 큰소리로 떠드니(자녀의 행동), 엄마가 신경이 많이 쓰이는구나(부모의 느낌, 감정). 그래서 엄마는 손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알아듣기가 어렵단다(부모가 받은 구체적인 영향, 결과).”

이처럼 나-전달법은 자녀에게 하나 짜증을 내지 않으면서 자녀 스스로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느끼고 판단하게 하면서 부모의 감정을 잘 전달하는 대화 방법이다.

자녀가 속상한 일이 있어 부모에게 말할 때는 속상한 자신의 마음을 부모에게서 위로 받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얘기한다. 그럴 때는 반영적 경청을 기억하자. 자녀의 말을 진지하게 잘 들어주면 자녀 또한 부모의 말에 귀 기울이며 듣게 되어 올바른 경청을 배울 것이다. 그리고 만약 부모가 자녀로 인해 속상한 일이 생겼다면 나-전달법을 사용해보자. 부모가 하는 말이 잔소리로 들리지 않고 자녀를 배려하는 말로 들리니 진지하게 부모의 말에 귀 기울여 문제 해결에 동참하려 할 것이다. 내 자녀를 위한 마음을 여는 공감된 대화, 존중하며 다가가는 대화가 될 것이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자 좋은 언어학습의 진철한 교육자임을 기억하고 이제부터 자녀와 대화를 할 때 반영적 경청과 나-전달법을 적극 사용하여 그 효과를 실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

최영미(부경대 부경아동상담소 부모교육 팀장·교육학박사)



최영미(부경대 부경아동상담소 부모교육 팀장·교육학박사)



한글을 배우는 할머니들의 일상을 담은 영화 ‘힐곡의 가시나무’의 한 장면.

단했고, 작년부터 한글교실과 검정고시대비를 다녔다.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게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수업 후 꼭 1시간씩은 남아서 공부를 하고 가셨다. 어머니의 최대 지원군은 열지리에서 함께 숙제도 봐주고 끊임없이 격려를 해준 남편분이다. 어머니는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은 게 꿈같다”며 아들에게만 살짝 보여주고는 졸업장을 장롱 깊숙이 고이 넣어 두었다고 한다. 배

움의 즐거움과 기쁨을 맛 본 어머니는 중졸 검정고시를 준비하러 한다. 공부만큼이나 어르신들의 건강도 중요하다는 졸업과 당뇨를 체크해주시는 남구보건소 노경민 간호사님, 어르신들의 학업을 위해 무료로 장소를 제공해주신 우암동 새마을금고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어르신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준 남구청 평생교육과에 감사드립니다.

박지영(한글강사)

독자의 소리

독자의 소리란은 독자 여러분을 위한 공간입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77, 4078, 1225honey@korea.kr

산타라 물 따라

산행을 떠나요



(2019. 6.)

구분	산악회	산행일자(요일)	장소	연락처
대연동	약천산악회	6.19.(수)	지리산백운동계곡	010-4655-4370
	백운산악회	6.12.(수)	김천 직지사	010-5621-4007
	산사량산악회	6.16.(일)	전남 보성 오룡산	010-2024-2892
	신요산악회	6. 2.(일)	영덕 동대산	010-3578-6482
	남구자유산악회	6. 2.(일)	거창 성령산	010-5576-8142
	대송산악회	6. 9.(일)	전북 고창 선운산	010-2559-2641
용호동	대산산악회	6. 9.(일)	여수 금오도 대부산	010-8565-8359
	하나로산악회	6. 5.(수)	영주 부석사	010-3837-6206
	웅신산악회	6. 9.(일)	경북 구미 배틀산	010-4657-7051
	청산산악회	6. 2.(일)	전남 강진 만덕산 가우도	010-8008-2087
	해월산악회	6.16(일)	경남 거창 기백산	010-3560-3409
	산이좋아산악회	6.23.(일)	구름 종대천계곡	010-9329-3560
용담동	청심산악회	6.23.(일)	남해 호구산	010-2736-7553
	화경산악회	6. 2.(일)	단양 만천호스카이워크	010-3575-3448
	용호산악회	6.23.(일)	영양 일월산 금강송 숲	010-9497-4575
	여명산악회	6. 2.(일)	경북 김천 대항면	010-2582-4254
	21세기산악회	6. 9.(일)	경북 안동 왕모산	010-7563-1943
	용마산악회	6. 7. ~9.(금~일)	물릉도, 독도	010-2692-1170
감만동	오솔길산악회	6.16.(일)	일설 옥정호 물안개길	010-8287-1192
문현동	문사산악회	6. 9.(일)	안동 월령동 둘레길	010-8466-8662
	산누리산악회	6. 2.(일)	울진 금강송 숲길	010-4035-3432

※ 산행일정은 산악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리지역 일자리 알림판

☞2019. 5. 23. 기준☜

회사명	근무지	모집직종	모집인원	모집기간	임금조건	연락처
장원에프엔에스 광개토관	용담동	단체급식 보조원	1명	19. 5. 23. ~채용시	시급 8,350원	070-7126-4603
영진씨아이(주)	용담동	컨테이너수리원 (리퍼어수리)	1명	19. 5. 23. ~채용시	연봉 35,000,000원	051-631-0597
아모레	대연동	경리사무원	1명	19. 5. 23. ~채용시	월급 1,750,000원	051-623-5722
의료법인연경 의료재단(인정 대여요양병원)	대연동	병원급식 조리사	1명	19. 5. 23. ~채용시	월급 2,320,000원	051-774-1095
㈜에스알씨	용호동	회계사무원	1명	19. 5. 23. ~채용시	연봉 22,000,000원~ 24,000,000원	051-412-6197
용호해보레 자동차판매	대연동	자동차 영업원	6명	19. 5. 23. ~채용시	월급 1,750,000원 +인센티브	051-628-2211
사회복지법인 영인유니 어린이집	용호동	특수보육교사	1명	19. 5. 23. ~채용시	월급 1,800,000원~ 2,000,000원	051-611-2429
주식회사 선보비케이엘	용호동	단순생산 보조원(남)	1명	19. 5. 23. ~채용시	월급 1,750,000원~ 1,800,000원	051-627-3421
희성식품(주)	대연동	주방보조원 (일반음식점)	1명	19. 5. 23. ~채용시	월급 2,090,000원	051-625-7404
㈜진아	감만동	중대형 화물차 운전원	1명	19. 5. 23. ~채용시	월급 2,100,000원	051-897-7009

※ 대한민국 모든 일자리 정보(worknet)와 연계
※ 남구 취업정보센터 ☎607-4347~8 Fax. 607-4349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48452 부산광역시 남구 문물로 19(대연동)
남구청 대표전화(051)607-4000 편집실(051)607-4077, 4078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amg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월간 <비밀매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만학도의 아름다운 도전

남구청 한글교실 검정고시반 어르신 3명 초등검정고시 합격

“어머님, 갓이 20개 있는데, 큰아들 주고, 작은아들 주고, 딸 주고, 네 줘 먹고. 그럼, 큰 아들은 얼마를 가지고 가는 걸까요?” “4분의 1이지”

우암동 새마을금고 2층 한글교실은 초등 졸업장을 목표로 한 어르신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열기가 뜨겁다. 올해부터는 남구청 평생교육과에서 한글교실에 초졸 검정고시 대비반을 운영해 어르신들이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도덕, 실과’를 배우고 있다. 2019년도 제1회 초등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한글교실 검

정고시 대비반 어르신 3명이 합격을 하는 경사가 났다. 변달용(70) 어머님은 초등 4학년 까지 다니다 학업을 그만 두게 되었는데, 늘 졸업장을 못 한 게 한이 되었다고 한다. 이번에 초등 검정고시 합격을 하고는 “이제 동창회에 댕끼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친구들은 늘 랜չ다며 나오라 하는데 내 마음이 불편해서 갈수가 없었거든. 선생님들~정말 고마워요”라며 소감을 밝혔다.

남도만(78) 아버님은 2년 동안 한글교실에 다니며 두 번째 도전에서

합격을 손에 쥐었다. 나이도 많고 귀도 잘 안 들리는 와중에도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셨는지 이런 일도 있었다. 검정고시 수업을 마치고 남구보건소 방문 간호사님이 혈압을 잴때나 혈압수치가 너무 높았다. 아버님은 “내가 검정고시에 꼭 합격하고 싶어서 요즘 밤늦게까지 공부해서 그런가보다”라며 수줍게 말씀하시기도 했다. 그런 노력 덕에 어려웠던 공부와 점점 쉬워졌고 시작됐고 합격에 이를 수 있었다.

소예순(68세) 아버님은 초등 3학년까지 다니다 몸이 아파 학업을 중